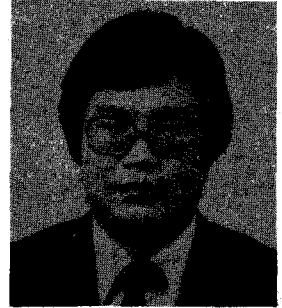


양계산물의 유통현황과 문제점 (Ⅳ)

- 육계의 유통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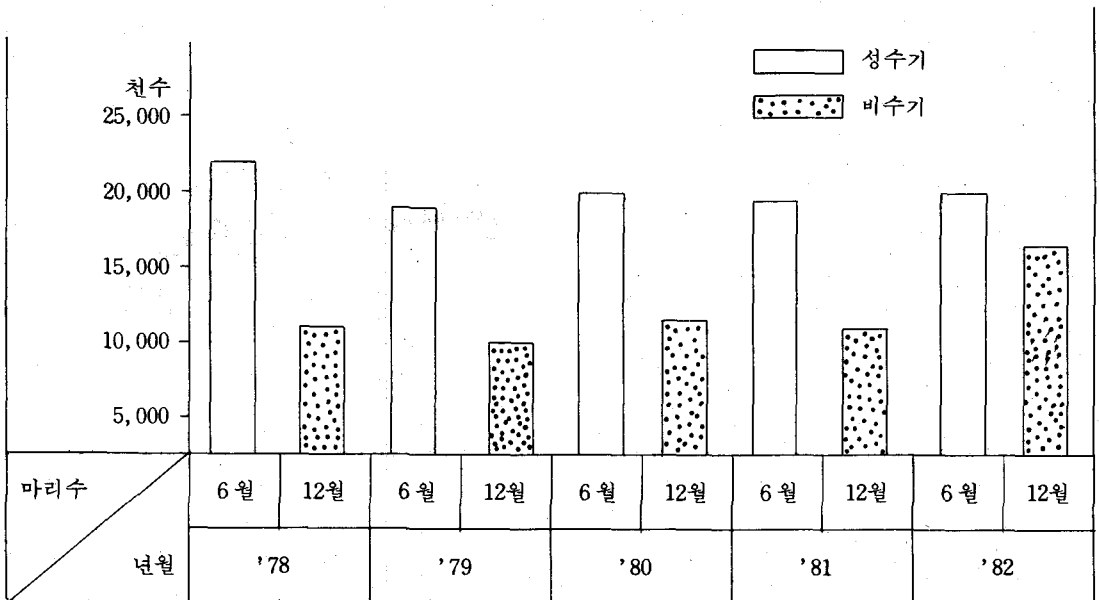
박 치 봉
(축협중앙회 유통과)

1. 육계의 생산동향

육계의 사육마리수를 살펴보면 한해는 크게 증가되고 다음해는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절대 사육마리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육계는 사육기간이 단기간이어서 1년에 5~6회의 생산이가능하므로 어느 한 시점의 사육마리수와 닭고기 생산량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육계의 사육마리수 증가와 더불어 닭고기 생산량도 매년 증가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림 8〉 닭고기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육계사육마리수



육계의 사육마리수 동향에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술한 육계의 순환경기에 따라 한해는 증가되고 다음해는 다소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름성수기에는 최고의 사육마리수를 보이다가 비수기인 겨울에는 최하의 사육마리수를 보이는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이는 점이라 하겠다.

한편 육계사육마리수와 병아리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산란계와는 달리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아리 생산기복이 육계보다 훨씬 커 병아리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육계병아리의 생산이 불안정한 이유는 산란계 부화업이 주로 소수의 대규모업자들에 의하여 생산공급되고 있는데 반해서 부화업자의 대다수가 육계용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는데다가 이들 대부분이 영세적이기는 하나 수요를 오관한 일시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육계 사육마리수와 병아리 생산량 비율은 대체로 1:5인 것으로 비추어 볼때 육계사육농가가 올인·올아웃(all in all out) 사육방식을 택한다면 입추 및 출하를 동일 제사에서 5회전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연간 총 사육마리수는 한 시점의 평균사육마리수의 약 5배 물량을 입을 추정할 수 있다.

2. 육계농가의 사육실태

육계사육농가들은 입추(출하)의 1주기를 보통 1파수(派収)라고 부르는데 1파수의 기간은 5일, 1주일, 10일, 2주일 등으로 일정치 않으나 이를 조사하여 본 결과 평균 18.5일이었다.

사육규모별 입추주기를 보면 규모가 클수록 입추주기가 짧아 3,000수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에서는 약 한달에 한번씩 입추하는데 반하여 10,000수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에서는 약 10일에 한번씩 입추하였다.

〈표 11〉 육계농가의 입추주기와 1회평균입추량

규모별	구분	입추주기	1회평균입추량
3,000수미만		32.3일	1,360수
3,000~5,000수		19.3	1,500
5,000~10,000수		12.8	1,611
10,000수이상		9.8	2,441
평	균	18.5	1,809

한편 육계농가가 입추량을 어떤 요인에 의하여 결정하는가를 알아보면 「닭고기의 수요」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고 「주기적 입추」는 30.1%로 그 다음이었으며 「육계가격」에 의한 것은 전체의 24.0%로 세번째 순이었다. 이로보아 가격보다는 닭고기의 수요가 입추량을 결정하는데 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병아리 가격이나 사육비는 입추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각각 8.1%, 2.0%씩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만 병아리 가격조건이 산란계의 경우 보다는 육계가 입추량 결정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육규모별로 입추량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다. 소규모일수록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입추량을 결정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고 대규모일수록 주기적으로 입추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육계의 가격동향

가. 육계의 거래 실태

육계의 산지가격은 육계사육농가의 문전에서 상인과 상대거래되므로 산지가격은 바로 농가 판매가격이 되며,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바로 농가 수취가격이 되는데 이때의 가격은 상대결정된다. 이러한 산지가격(농가판매가격)은 시장수급에 따른 상인의 예상판매가격에 의하여 상인이 주도하므로 사육농가의 생산가격은 산지가격 형성에 별다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병아리의 경우는 생산가격이 판매가격 결정에 기준이 되고 있음)

〈표 12〉 육계농가의 입추량 결정요인

단위 : %

규모별	결정요인	닭고기수요	육계가격	병아리가격	사육비	주기적입추	계
3,000수미만		35.4	27.1	8.3	2.1	27.1	100.0
3,000~5,000수		38.1	14.3	-	-	47.6	100.0
5,000~10,000수		38.6	22.9	9.6	2.6	26.3	100.0
10,000수이상		30.2	27.0	7.9	1.6	33.1	100.0
평	균	35.8	24.0	8.1	2.0	30.1	100.0

육계도 산란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단지화 되어 있어 사육농가가 자생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가격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시도하고 있으나 육계경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육계농가의 전업이 많아 산란계농가들과 달리 자생단체 활동은 크게 미흡하며 가격형성의 주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육계의 도매가격에는 생계의 도매가격과 도계육의 도매가격이 있는데 생계의 도매가격은 수집반출상이 생계를 도·소매상에게 공급하여 주는 가격이며, 도계육 도매가격은 도계장이나 도계육 도매상(생계취급상 겸) 및 생계도매상이 도계형태로 소매상에게 공급하여 주는 가격이다. 육계의 소매가격은 시장의 수급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소매가격 및 예상소매가격은 대체로 산지가격이나 도매가격에 많은 파급영향을 주고 있다.

산지 및 도매단계의 육계 거래단위는 마리(수)이나 가격은 kg당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소매단계에서는 표면상 kg당 가격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거의 마리당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나. 가격동향

육계가격은 대체로 일정한 주기의 동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주기가 길 때는 10개월 정도, 짧을 때는 7개월 정도의 주기로 번갈아 순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육계의 가격상승률과 가격진폭률을 살

펴보면 최근 5개년 동안의 육계가격 상승률은 경상가격으로는 14.9%를 나타냈으나 실질가격으로는 -4.2%를 나타내어 육계의 실질경기가 침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육계가격의 연간 가격진폭은 매우 높아 5개년 평균 45.5%를 보였는데 이와 같이 육계의 연간 가격진폭이 큰 것은 육계는 사육기간이 짧아 단기 대량생산과 대량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산지 및 도매단계의 도계육은 kg당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도계육의 검사)

다. 산지 육계가격의 주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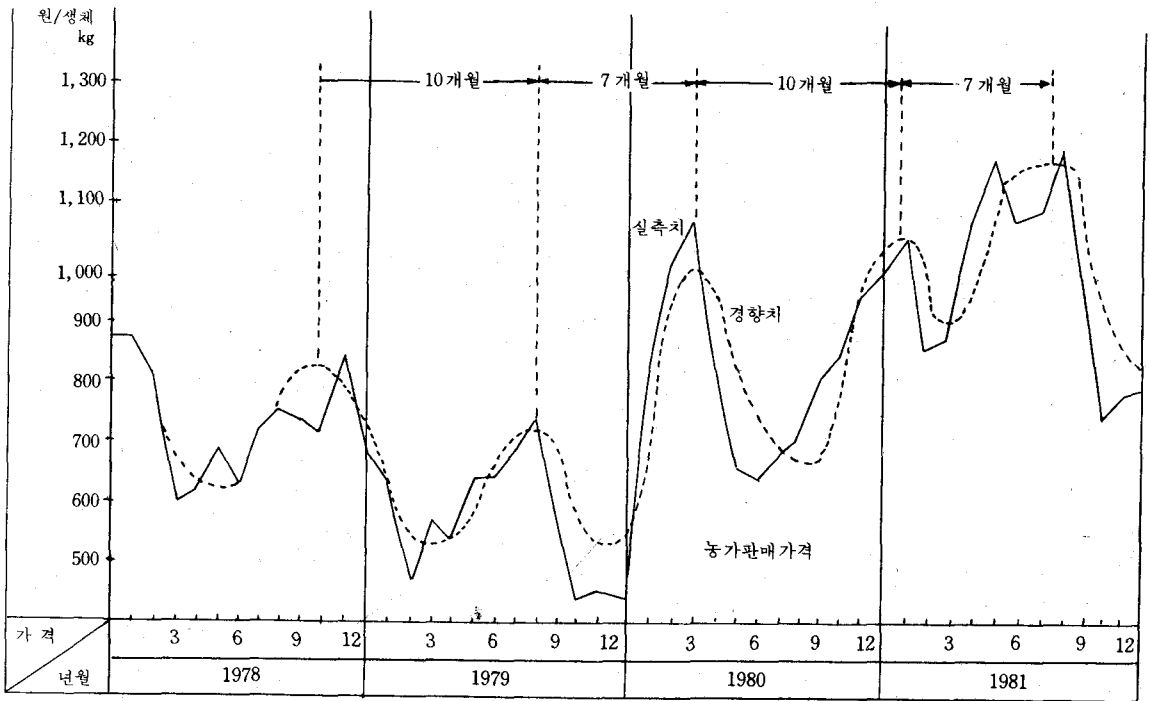
육계도 타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경쟁생산되므로 가격도 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등락되고 있으나 그러한 속에 어느 계층에서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39.9%가 상인이 가격을 주도한다고 응답하였고 13.8%는 생산자 자신이 주도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같이 육계가격을 상인이 높은 비중으로 주도하게 되는 것은 사육농가가 상대적으로 시장정보에 어둡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육계의 전 유통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도 기준가격(중심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상인의 예상판매가격에 따라 산지가격이 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 13〉 육계가격의 주도체 단위 : %

가격주도 규모별	상인	개 별 생산자	생산자 단 체	기타시 장주요	계
3,000수미만	36.4	10.8	7.3	45.5	100.0
3,000~5,000수	51.6	9.7	6.4	32.3	100.0
5,000~10,000수	39.1	11.8	11.8	37.3	100.0
10,000수이상	40.7	20.3	5.1	33.9	100.0
평 균	39.9	13.8	8.6	37.7	100.0

육계생산자단체가 가격을 주도하는 비율은 전체의 8.6%로 계란의 18.3%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육계의 생산자단체가 산란계 경우보다 활동이 부진하여 시장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림 9〉 육계가격 시계별(時系列) 동향

4. 육계의 유통실태

가. 산지단계의 유통실태

산지단계의 유통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육계사육농가의 판매처를 보면 도매상이 전체의 35.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수집반출상으로 전체의 29.9%정도된다. 육계사육농가가 도계장에 판매하는 경우는 9.0% 정도이며 육계농가가 대량소비처(군납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에게는 직판매가 4.7% 정도여서 산지 소비처 직거래체제가 소망스럽다 하겠다.

한편 육계농가의 판매처 단골비중을 보면 단골을 정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47.7%이고 단골을 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32.8%여서 계란의 경우(단골지정 77.7%, 미지정 7.8%)보다 단골 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육계의 단골 비중이 계란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는 것은 육계사육이 산란제에 비하여 불안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상품으로서의 저장기간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계란의 경우 사육농가와 상인이 비교적 잘 연계되어 물량 과부족시 생산자는 판로가, 상인은 물량확보가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되는데 반하여, 육계의 경우 상인과 생산농가가 잘 연계되지 못하여 물량과잉시 농가의 판로상 애로가 계란보다 더욱 심각한 것

〈표 14〉 육계농가의 육계판매처 단골비중
단위: %

규모별	항목	단골 지정	단 골 미지정	기타	계
3,000수미만		25.0	50.0	25.0	100.0
3,000~5,000수		66.7	20.0	13.3	100.0
5,000~10,000수		40.8	25.9	33.3	100.0
10,000수 이상		50.0	50.0	-	100.0
평 균		47.7	32.8	19.5	100.0

으로 판단된다.

사육규모별 단골지정 비중을 보면 대체로 사육규모가 클수록 단골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나. 도소매단계의 생계 유통실태

도소매단계의 육계유통은 지방 군소도시를 제외하고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도계육유통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계유통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도시의 생계유통 비중은 평균 21.9%나 되고 있다.

도매단계의 생계유통은 횡적인 거래(도매상 간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도매상이 산지에서 자체수집하거나 수집상에 의하여 공급받아 생계도매상에게 공급하거나 자체도제하여 소매상에게 공급하고 있다.

생계를 공급받은 소매상(소매상이 산지에서 직접 구입도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체 도제후 소매하고 있다.

이러한 도소매 단계의 자체도제분을 보통 밀도제라 부르고 있다.

다. 도소매단계의 도계육 유통실태

(1) 도계육의 일반적인 유통실태

육계의 유통은 허가된 도계장에서 도계되어 검사, 합격품만이 유통되도록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규정(1974. 12. 26, 법률 제2738호) 됨에 따라 전국 주요도시부터(농수산부 고시 제 2698호, '75. 9. 23) 생계유통이 제한되고 도계품만이 유통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몇 차례의 법률개정과 고시의 변경을 거쳐 전국 24개지역('82.8현재)에서 도계육만이 유통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도계육 유통고시 지역에서는 생계유통이 점점 감소되고 도계육 유통이 점증되고는 있으나, 소비자의 생계선호와 더불어 생계소매상이 음성적으로 존재하므로 많은 행정단속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계육의 유통은 수집반출상 및 도매상들에 의하여 산지에서 생계로 수집되어 도계장에 위



△도계육의 처리

탁도계하거나 자체도계하여, 도계육소매상에게 공급하는데 도계장에서 처리되는 이외의 도계를 일반적으로 밀도계라 한다.

도계육 취급도매상들은 과거 생계상을 하였거나 현재 생계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도계육을 소매상들에게 직접 배달공급하기도 하며 또 큰 시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주로 이른 아침)에 도매하기도 한다.

한편, 도계육 소매상들은 수집반출상이나 도매상들로부터 도계형태로 공급받아 소매하나 일부(특히 지방도시)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산지에서 생계를 구입하여 도계장에 위탁도계 또는 자가도계한 후 소매하기도 한다.

도계육소매상은 일정한 점포가 있는 소매상과 점포가 없는 좌판소매상 및 노점소매상의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이 좌판소매상이고 냉장시설이 있는 소매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도계육의 위생적인 유통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2) 도계육의 상품형태

도계육의 상품으로는 중량(크기)에 따라서 대체로 매(hi-broiler), 중(semi-broiler), 소(영계) 그리고 산란노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도계육처

리형태에 따라서는 탈모형태, 탈모+내장제거 형태 그리고 탈모+내장제거+목·발제거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도계육의 수요처에 따라서 요식업소용(구이용)과 일반가정용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하는데 요식업소용은 주로 세미브로의 탈모+내장·목·발제거 형태이고 일반가정용은 주로 하이브로의 탈모+내장제거 형태이다.

서울의 일부 백화점과 슈퍼마켓에서 닭고기를 부위별로 포장판매하고 있는데 상품의 형태로는 날개, 정육, 가슴살, 다리살로 구분되고 있으며 통닭, 삼계탕용, 구이용으로도 구분 판매되고 있는데 어느 경우나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3) 도계장의 처리능력과 도계육 유통비율

전국의 도계장수를 보면 서울 및 경기도가 17개소로 가장 많고 그의 지역은 2-3개소씩 고루 분포되었다.

〈표 15〉 도계장수 현황

단위 : 개소

지역별	도계장수	지역별	도계장수
서울·경기	15	전북	2
인천	2	전남	4
부산	3	경북	2
대구	1	경남	3
강원	2	제주	2
충북	2		
충남	1	계	39

자료 : 농수산부 가축위생과 (82.12)

한편 주요도시의 도계육 유통실태와 아울러 도계장의 처리능력과 유통비율을 살펴보면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도시 도계장당 1일 처리능력은 평균 12,000수 정도이고 1일 평균 도계실적은 3,400수로 가동율은 28.3%에 불과하다.

주요도시별로 도계육 1일 처리능력을 살펴보면 서울 및 서울근교가 180,000수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이 부산으로 40,000수 정도이며 그 다음은 인천으로 20,000수 정도이고 그의 지역은 각 1개의 도계장이 설치되어 처리능력은 대체로 10,000수 정도이나 이는 도계물량이 1일 8시간 정도 균등하게 계속공급될 때의 능력이므로 도계위탁자 필요시의 처리능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본다.

아뭇튼 도계장측에서는 도계처리능력이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인지 생계유통의 강력한 행정단속만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도계장의 도계처리 시설이 전국에 4개소 정도(82. 12월 현재)를 제외하고는 생계상과 같은 재래식 원형탈모기로 처리되고 있어 생계상보다 규모만 클뿐 위생적인 면이나 품질면에서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다.

도계육의 수송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진채 일반화물차나 용달차로 수송되고 있으며 소매상의 판매시설 또한 인천과 수원지역의 일부외에는 대부분 냉장시설이나 쇼케이스 등이 없이 비닐판이나 목판위에 진열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주요도시의 도계육 유통비율을 보면 허가된 도계장분의 유통비율은 평균 55.6% 정도이고 도계육의 총유통비율은 78.1%정도이나 이러한 도계육 유통비율은 생계유통의 강력한 행정단속이 수반될 때 높은 비율을 보이고 행정단속이 소홀해지면 그 비율은 낮아지는 실정이다.

도계육 유통이 완전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인천과 수원인데 그 비율은 95%정도이며 비교적 잘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부산과 춘천으로 도계육 유통비율은 90%정도이다.

그의 지역은 행정단속의 강약에 따라 크게 유동적인데 이와같이 도계육유통이 행정단속의 강약에 따라 그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은 제도적인 이유외에는 소비자가 생계를 선호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는 소매상이윤이 생계가 도계육보다 약 9%정도 많은데다가 도계육은 신선육으로서의 저장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계육 유통이 잘되는 지역의 원인을 살펴보면 생계유통의 강력한 행정단속 이외에 과거 생계취급상이 도계육 유통을 전담함으로써 이들

〈표 16〉 주요도시의 도계장 처리능력과 도계육 유통비율

조사지역	구분	도계장수	도계능력 (1일평균)	도계실적 (1일평균)	가 동 율	도 계 육 유통 비 율	
						도계장분	총도계육
서울 및 경기		15 개소	180,000 수	42,000 수	23.3 %	35 %	70 %
부 산		3	40,000	15,000	37.5	70	90
대 구		1	10,000	5,000	50.0	30	70
인 천		2	20,000	10,000	50.0	90	95
수 원		1	7,000	5,000	71.4	90	95
대 전		1	10,000	3,500	35.0	60	80
전 주		1	10,000	2,500	25.0	60	90
광 주		1	15,000	1,000	6.7	10	25
평 균		25	*12,000	* 3,400	*28.3	*55.6	78.1

주 1) 본자료는 '82. 5월 현재 현지 조사결과 획득한 자료임

2) *도계장당 평균수치

〈표 17〉 주요도시의 도계형태와 도계료

조사지역	구분	도 계 육 처 리 형 태			도 계 료
		탈 모	내 장 제 거	내 장 · 목 · 발 제 거	
서울 및 경기		- %	80	20	40-100 원/수
부산		90	10	-	80
대구		-	100	-	100
인천		-	90	10	70
수원		-	90	10	70
대전		100	-	-	90
전주		-	100	-	80
광주		-	100	-	80
평 균		23.7	72.5	3.8	78

주 : 본 자료는 '82. 5월 현재 현지 조사결과 획득한 자료임

의 생계가 보장되고, 도계육 취급상이 깨끗하고 신선하게 도계육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도계비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 도계형태와 도계료

도계장의 도계는 생계를 직접구입하여 도계하는 경우와 상인이 의뢰한 생계를 수탁도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요도시 평균 구입도계율은 13.8% 정도이고 수탁도계율은 86.2%여서 대부분이 수탁도계임을 알 수 있다. 도계장측에서 구입도계하는 지역은 서울과 수원뿐이고 그의 지역은 모두 상인 생계물량을 수탁도계하고 있다. 도계장에서 도계육 처리시 탈모만 하는 경우는 평균 23.7% 정도이고 내장까지 제거하는 경우는 평균 72.5%정도이며 내장·목·발까지 제거하는 경우는 3.8%정도인데, 이를 다시 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대전은 대부분 탈모만 하고 그의 지역은 대부분 내장까지 제거하며 서울과 인천은 일부 내장 및 목·발까지 제거하여 요식업소에 공급하기도 한다.

한편 도계장의 도계료는 1수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가산된다.

주요도시 평균도계료는 78원인데 지역마다 도계료는 약간씩 달라 대구와 서울(근교포함) 일부가 100원으로 가장 높고 수원과 서울(근교포

함) 일부가 제일 낮다. 서울 및 근교의 경우도 도계료가 수당 40~100원으로 그 차가 심한데 이는 일부 도계장에서 도계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열경쟁으로 음성적인 도계료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5. 도계의 유통경로와 마진

가. 유통경로

육계의 유통경로는 생계유통의 경우 사육농가→수집반출상(또는 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경로가 일반적이고 도계유통의 경우는 사육농가→수집반출상(또는 도매상)→도계장→계육도매상→소비자의 경로가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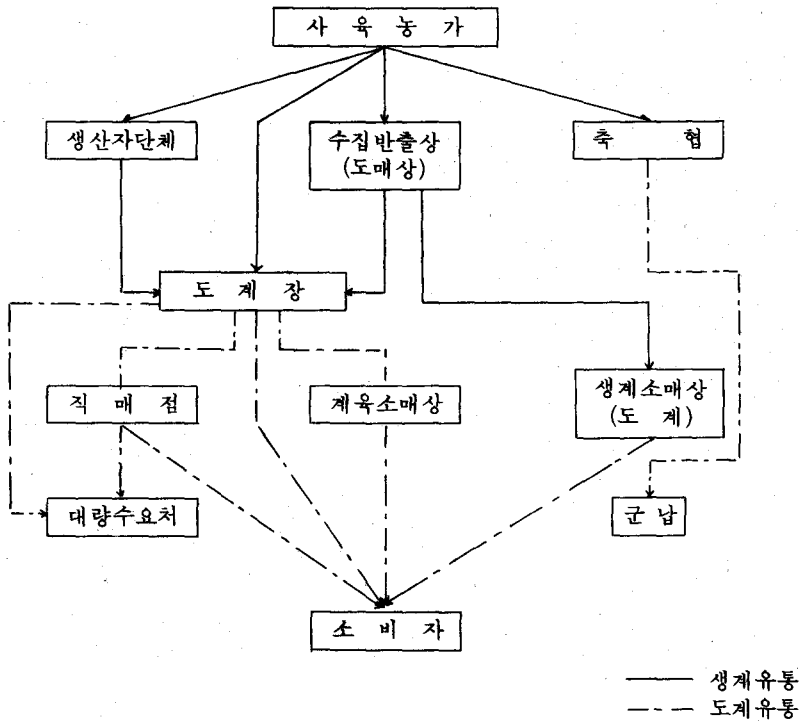
계육의 군납은 축협이 군과의 계약 아래 사육농가로 구성된 군납단지를 조성, 납품하고 있다

나. 유통마진

육계유통은 크게 생계유통과 도계유통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경로의 농가수취율을 비교하여 보면 생계유통의 경우 72.0%, 도계유통의 경우 80.8%여서 평균 75.7%의 농가수취율을 보였다(농가수취율과 수취가격은 별개의 개념임)

유통마진율을 보면 생계유통의 경우가 28.0% 도계유통의 경우가 20.0%로 생계유통의 마진율

(그림 10) 육계의 유통경로



(표 18) 육계의 유통마진

단위 : %

구분	생계유통		도계유통		평균	산란노계		
	산지→서울	산지→지방도시	산지→서울	산지→지방도시		산지→서울		
농가수취율	72.3	71.4	81.2	77.7	75.7	63.7		
유통마진율	총마진율		27.7	28.6	18.8	22.3	24.3	
비율	비용	7.2	5.4	9.7	9.3	7.9	9.8	
	이윤	20.5	23.2	9.1	13.0	16.4	26.5	
유통마진율	수집 및 반출단계 (도매상점)	비용	3.5	2.0	6.8	6.7	4.8	8.0
		이윤	3.7	3.4	1.5	7.2	4.0	5.2
	소매단계	비용	3.6	3.5	2.9	2.6	3.1	1.8
		이윤	16.8	19.8	7.6	5.8	12.4	21.3

이 8.0%포인트나 높는데 이는 생계유통이 제한됨에 따라 수요의 경쟁력이 높아져 생계소매상이윤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유통마진 중 유통비용과 이윤을 보면 비용은 생계유통이 6.7%, 도계유통이 9.5%로 도계유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2.8%포인트가 높는데 이는 주로 도계료의 차이때문이고 유통이윤은 생계유통이 21.3%, 도계유통이 10.5%로 생계유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10.8%포인트가 높다. (계속)